

# 43

##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은 야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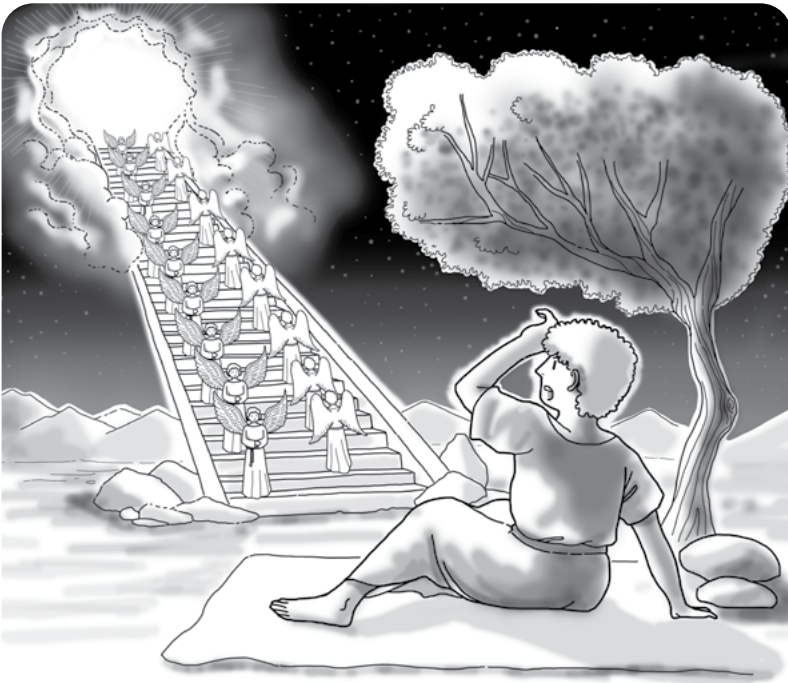
창 28:10~22

찬송가 377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 112장 (주 우리 아버지)

오늘 배울



1.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시며 갈 길을 말씀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압니다.
2.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압니다.



내가 너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창 28:15~17)



## 을 이해하기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육신에 속한 첫째 아들 에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돌아보면 그의 삶 속에는 그 자신의 계획으로 인해 야기된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과 동행하시면서 위로하시고 단련시키셔서 마침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 나타나신 것은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후,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 하란으로 가던 길에서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로 장막에서 평안한 생활을 하던 야곱에게 별 준비 없이 떠난 800km의 도피 여행은 고달프고 외로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지친 가운데 별판에서 한 돌을 베고 자던 야곱의 꿈에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닿은 사닥다리(사다리)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신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재차 보장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야곱과 동행하시면서 야곱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그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위로도 주셨습니다. 이에 야곱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두려움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야곱의 일생 가운데 항상 함께하시면서 야곱을 인도하셨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는 가운데 야곱과 같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고 외로울 때, 절망과 낙심 중에 있을 때 항상 함께 계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새로운 힘을 북돋게 해 주십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 공과말씀 정리

-----  
-----  
-----  
-----  
-----  
-----



##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 4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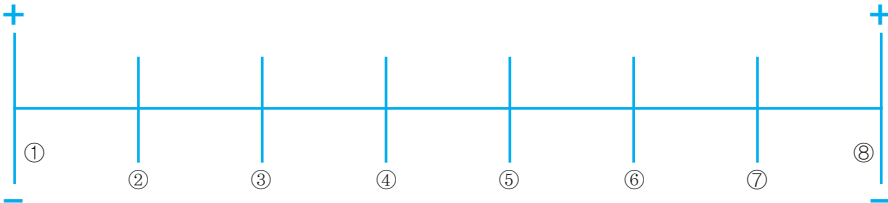
Fear not, for I am with you; Be not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Yes, I will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Is 41:10)

-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2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1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이며 왜 그런 이름을 얻게 되었는지 창세기 25장 24~26절을 읽고 답해 봅시다.
- 2 야곱의 삶을 내 나름대로 평가하여 곡선으로 그려 봅시다.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되면 +로, 나쁜 일이었다고 생각되면 -로 곡선을 그리고 왜 그렇게 그렸는지 설명해 봅시다.



① 쌍둥이 중 동생으로 태어남	②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음
③ 벰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음	④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수고함
⑤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뀜	⑥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생각함
⑦ 애굽에서 요셉을 다시 만남	⑧ 애굽에서 죽어 가나안에 장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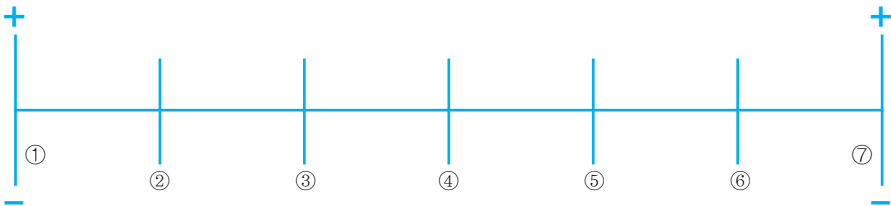
3

하나님은 야곱과 항상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겪은 어려움과 고난을 보고 왜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셨는지 이유를 적어 봅시다.

구분	야곱이 겪은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
1	자신을 죽이려했던 형 에서	
2	라반 집에서 20년간의 수고	
3	자녀 중 요셉을 잃음	

4

나의 인생 곡선을 그려보고, 왜 그렇게 그렸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① 태어났을 때
- ② 유아기 (2~4세)
- ③ 유치원 (5~7세)
- ④ 초등학교 1, 2학년
- ⑤ 초등학교 3, 4학년
- ⑥ 초등학교 5, 6학년
- ⑦ 중학교



을 삶에 적용하기

###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욘 23:10

---



---



---



---



---



---



---



---

의

시 32:8

---



---



---



---



---



---



---



---

화

시 142:3

---



---



---



---



---



---



---



---

↑

잠 16:9

---

---

---

---

---

---

---

---

↓

잠 16:33

---

---

---

---

---

---

---

---

↓

잠 20:24

---

---

---

---

---

---

---

---

↓

렘 10:23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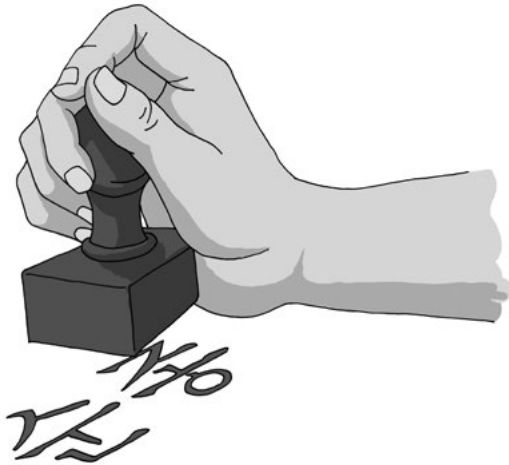
---



## 사람마다 달리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을 인도하실 때 사람마다 그들의 약점을 알고 체질에 맞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를 획일화되고 비인격적으로 몰아가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강요된 복종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 중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그분의 인도와 보호 아래 사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헌납증서에 기쁨으로 도장 찍기를 기대하십니다. 때로는 고요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특별한 때는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 그의 뜻을 깨닫게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와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질문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데 왜 꼭 피 흘림으로 구원을 이루셨나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어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죄의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롬 6:23)**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어떤 죄도 그냥 용서하실 수는 없으며 오직 그 죄값을 치러야만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죄값을 누가 대신 갚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대신 죄값을 갚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의 죄값을 갚기 위해 대신 죽기로 작정하시고 대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피로 사셨다고 하셨고(행 20:28), 또 값으로 산 너희(고전 6:20)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고전 7:23)**

그런데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꼭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을까요?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뜻하므로 구약시대부터 속죄 제물로 양이나 염소를 죽일 때 꼭 피를 뿌렸습니다. 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기 때문입니다(히 9:22).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 17:11)**

생명은 생명으로만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